

# 2020년 08월 가정통신문



안녕하십니까?

길고 지루했던 장맛비가 주춤해지고 있습니다.  
가정에서도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로 이어졌으면 합니다.

8월에는 기존 외부, 내부 프로그램 외  
일반인과 학생들의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을 접하게 되었습니다.  
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과 학생들이 진행하는 노인신체활동 프로그램과  
신나라 전래놀이 프로그램(19일)이 있었거나 있습니다.

어르신들의 흥겹고 행복한 날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